국외출장 결과보고

방통위 중국(베이징 · 원저우 · 난징) 출장 결과

-한 · 중 방송 정책협력 및 사업자 간 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 기　　간 : 2016. 7. 25(월) ~ 7. 29(금), 4박 5일

◆ 방문국가 : 중국(베이징, 원저우, 난징)

2016. 8.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Ⅰ. 출장 개요 ····· 5

Ⅱ. 세부 활동 ····· 6

1. 원저우라디오TV미디어그룹 면담 ····· 6
2. 원저우 시장 면담 ····· 13
3. 원저우시 계획 전시관 및 한국기업상품전용관 방문 ····· 19
4. 난징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소프트웨어단지 방문 ····· 20
5. 난징 리지샹 일본군 위안소 유적지 방문 ····· 21
6. 난징 대학살 기념관 방문 ····· 23
7. 영화제작사 AFT 방문 ····· 25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27

1. 시사점 ····· 27
2. 특이사항 ····· 28

Ⅳ. 첨부자료 ····· 29

1. 출장 동정 보도자료(7.25) ····· 29
2. 원저우 관련 보도자료(7.27) ····· 30
3. 난징 관련 보도자료(7.29) ····· 32
4. 중국 출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8.1) ····· 34
5. 주요 언론보도 현황 ····· 39
6. 공무국외여행계획서 ····· 48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o 한-중 방송 정책협력 강화 및 사업자 간 콘텐츠 교류 활성화 지원

2. 출장 국가 : 중국(베이징, 원저우, 난징)

3. 출장 기간 : ’16년 7월 25일(월) ~ 29일(금), 4박 5일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비 고
1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 재 홍	
2	운영지원과	비서관(행정사무관)	김 성 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배병환 선임연구원 수행

5. 주요 활동

o 중국 지방정부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한 한·중 방송분야 민관 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

o 중국 지방TV 방송사를 방문하여 양국 방송 콘텐츠 업계의 향후 협력 방향, 중국의 방송시청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 방송 콘텐츠의 우수성 및 상품성 등에 대해 홍보

o 난징 일본군 위안소, 난징대학살 등 역사현장 방문을 통한 한중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소재 발굴 및 제안

o 기타 원저우시 한국상품전시관, 난징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소프트웨어단지 등을 방문하여 한-중 기업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Ⅱ. 세부 활동

1. 원저우 라디오TV 미디어그룹 면담

□ 일시 /장소 : ‘16. 7.26(화) 17:00~19:00, 원저우미디어그룹 회의실

□ 참석자 :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 김성환 비서관
(원저우라디오TV그룹) 왕단(원저우시 당 선전부부장), 양속휘(회장), 왕려(부총재), 우학명(총편집실장), 류심양(부총재), 장위(원저우시 발전계획위원회 주임), 주회중(원저우시 외사부 주임), 황건우(원저우시 대외선전부)

<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 개요 >

□ **명 칭** :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 그룹(이하 ‘원저우TV’)
(溫州广播電視傳媒集團, Wenzhou Radio & TV Media Group)
□ **위 치** : 저장성 원저우시 신성대도 39호(浙江省 溫州市 新城大道 39号)
□ **설 립 일** : ‘10. 12. 23.(원저우시 내 미디어그룹을 하나로 통합해 탄생)
□ **총 자 산 / 직원수** : 약 23억 위안(약 4,100억 원) / 1,400여 명
□ **사업영역** : TV, 라디오 등
□ **채 널** : TV 5개, 라디오 5개. 총 10개 채널을 소유
o T V : 新聞綜合(뉴스), 經濟科教(경제과학), 都市生活(도시생활), 公共頻道(공공), 瓯江先鋒(구강개척)
o 라디오 : 溫州之聲(뉴스 방송), 交通广播(교통라디오), 音樂之聲(음악의 소리), 經濟生活(경제생활), 綠色之聲(녹색방송)
o 일일 170시간 이상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으며, 저장성 및 푸젠성 지역의 1,0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커버

o 주요 내용 요약

- 김재홍 부위원장, 왕단 원저우시 선전부장, 양속휘 원저우 라디오TV그룹 회장등은 한국과 원저우시 간의 방송 콘텐츠 등을 포함한 경제·문화 교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원저우시를 소재로 한 드라마,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등에 대해 논의함

【원저우 라디오TV그룹 방문 관련】

o **(양속휘 회장)** 최근 원저우 라디오TV그룹은 해외 방송사와 교류를 증대해 왔으며,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님의 방문과 도움을 통해 작년 10월 13일에는 OBS경인방송과 MoU를 체결함

- 그리고 이 MoU를 통해 '원저우패밀리 시즌1'을 OBS 경인TV를 통해 방송하게 되었음

- 오늘 한국 대표단의 원저우시 방문은 이러한 활동의 연속상에 있는 것이며 앞으로 양국의 발전이 지속되기를 희망함

【한국-원저우시 경제·문화교류 협력】

o **(왕단 선전부부장)** 김재홍 부위원장님을 대표로 하는 한국 방문단을 환영하며 금번 원저우 방문 행사가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함

- 원저우는 중국 동남 연해 황금 해안선에 위치해 있고, 저장성 3대 중심도시이며, 중국 전국적으로도 문명·위생·산림도시 등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 문화, 관광이 공존하는 도시임

- 원저우는 과감히 도전해 나가는 정신력과 상업능력으로 활력이 넘치며, 원저우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면서 원저우 상회를 설립, 세계 무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원저우 라디오TV 그룹 면담 사진 >

- 원저우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밀접하게 교류해 왔으며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합작교류가 가능할 것임
- 최근 2년 간 한-중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그 배경에는 이수성 전(前) 국무총리, 정갑윤 전(前) 국회 부의장, 김재홍 부위원장 등의 원저우 방문이 있음
- 작년에는 한-중 산업협력회담이 원저우에서 개최된 바 있고, 우리 원저우시도 한국을 방문하여 대구한의대학, 대구시, 중앙일보 등과 교류를 한 바 있고, 또한 원저우TV와 한국 방송사 간의 MoU를 계기로 원저우인의 삶이 담겨있는 '원저우패밀리 시즌1'이 한국에서 방송된 바 있음
- 이번 김재홍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 방문이 한국과 원저우시 간 방송제작 및 합작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원저우를 한국에 널리 알리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음

o **(김재홍 부위원장) 원저우시 및 원저우 라디오TV그룹을 작년에 이어 다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쁨**

- **저는 2014년 원저우시 한국 행사를 계기로 원저우시를 알게 되었고, 한국과 중국의 교류에 있어서 그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원저우시가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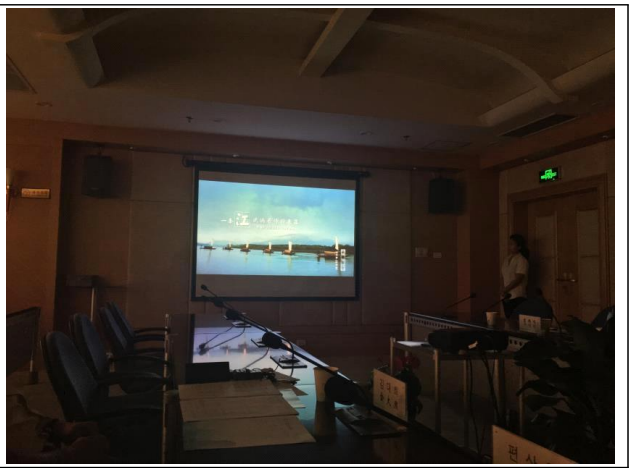
< 원저우라디오TV 그룹 면담 사진 >

- 오늘 함께 방문한 SBS는 공영방송 KBS·MBC와 함께 한국의 대표 방송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높은 시청률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OBS는 경기도와 인천시를 중심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영향력이 높은 방송사로 이번 원저우시 방문에 큰 의미를 남기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경제 중심 도시 원저우, 관광 중심 도시 원저우, 역사 문화 도시 원저우를 많이 보여주고 설명해주면 좋은 자료가 되어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일 원저우시 정부와의 면담도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제가 방송 콘텐츠를 포함한 경제·문화 교류의 도시로 원저우시를 선택하게 된 것을 보람있고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의 교류에 있어서 원저우시가 핵심이 될 것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겠음

< 원저우라디오TV 그룹 면담 사진 >



- 작년에는 원저우TV와 EBS·CJ E&M이 MOU를 체결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이제 원저우시와 한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함. 금번 취재단을 포함한 저의 방문은 한국 시청자들에게 원저우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임

- 추가적으로 원저우시의 여러 장점들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통한 방법도 있겠지만, 원저우시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를 제작하여 한국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것을 제안함. 중국에서 저작권을 갖고 한국의 방송사와 공동제작을 하거나 외주 제작사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한국과 중국의 경제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원저우 지역과 교류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원저우시 현황 및 투자】

o (장위 원저우시발전계획위원회) 원저우시는 한국과의 원활한 투자 교류를 위해 최적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2015년 11월에 한국의 기업이 원저우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약 11가지의 특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저우시 4개구와 구강구, 저장성 남부 산업구에 적용됨

< 원저우시 한국 기업 투자 정책 주요 내용 >

① 한국을 대상으로 패션산업, 자동차 산업, IT 산업, 생명산업, 의학산업 등을 과제를 제시
② 한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토지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제시하고 문제가 생길시 원저우시 정부가 중재 가능함
③ 공장 등 기초 건설에 대해서 우대해 주고, 투자 유치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함. 중국 또는 한국이 직접 및 위탁 건설 가능
④ 한국측의 전략적 합작 동반자를 영입하는 경우 우대 가능
⑤ 건물의 경우 렌탈 형식으로 가능하고 건축시 내부 구조도 한국측 의견에 따라 설계가 가능
⑥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특별히 별도 지원이 가능하며, 자금 대여나 특별히 전담부서 인력을 투입하여 각종 서류 작성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음
⑦ 투자 자금에 있어 은행 대출이나 각종 세금 면제 등을 알선 가능함

【방송 콘텐츠 분야 교류 관련】

o (양속휘 회장) '원저우패밀리 시즌1'이 한국 OBS TV를 통해 방송이 되었고, 그 시청률 또한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다음 단계로 시즌1 또는 시즌2가 KBS 등 다른 방송사를 통해 방송이 되기를 희망함

- 현재 원저우 출신 기업인을 모델로 중국 드라마제작센터와 원저우 TV가 합작해서 '원저우패밀리 시즌3'를 제작할 계획이며, 서울에서도 촬영할 예정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방통위가 도와주었으면 좋겠음

- 또한, 한국 방송사가 원저우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경우 저희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 있으며, 한국에서 단독 제작하더라도 최대한 중국 현지 제작을 도와주겠음

- 한국 방송 콘텐츠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원저우에도 한국 스타를 많이 인지할 정도의 큰 팬덤을 형성하고 있어 우리측도 한국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원저우라디오TV 그룹 면담 사진 >

o (김재홍 부위원장) '원저우패밀리 시즌1'은 이미 방송이 되었고 경쟁관계인 타방송사에서 방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시즌2나 시즌3 등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교류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저장TV는 한국 SBS 런닝맨 포맷을 도입한 '달려라 형제'로 중국내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거둘만큼 큰 성공을 하였음. 이러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방송사와 공동제작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은 원저우시 홍보에 큰 효과가 있으며 경제·문화 교류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임

< 원저우라디오TV 그룹 면담 사진 >

- 원저우를 무대로 한 다큐멘터리·드라마를 4부작 형태(75분)로 제작하면 좋을 것이며, 중국에서는 대략 10부작 형태(30분)로 방송이 가능할 것임. 제작형태는 한국 방송사나 외주 제작사 모두가 가능할 것임

- 프로그램 제작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한 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낮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이는 또 다른 한-중 공동제작 아이템으로 방송 콘텐츠가 경제·문화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성공사례가 될 것임

2. 원저우 시장 면담

□ 일시 /장소 : ‘16. 7.27(수) 08:30~09:30, 원저우시 회의실

□ 참석자 :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 김성환 비서관
(원저우시) 장경(시장), 호검근(당 선전부장), 왕단(당 선전부 부장), 양속휘(원저우 라디오TV그룹 회장), 기타 원저우시 간부(묘위륜, 팽립화 등)

< 원저우시 개요 >

o **면 적** : 육지면적 11,784㎢, 바다면적 약 11,000㎢

o **인 구** : 약 912만 명(‘14년 기준)

o **위 치** : 저장성 동남부에 위치하며, 북부는 타이저우시, 서부는 리수이시, 남부는 푸젠 성에 인접

o **경 제**

- 원저우는 중국 민영경제의 발원지이며, 개혁개방 이후 ‘원저우모델’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룸
- 거대한 민간자본과 발달된 산업분야로 민영경제의 본보기가 됨
- 개인 상호 40만 개와 민영기업 10만 곳이 등록되어 있고 전자기기, 피복, 신발, 펌브밸브, 자동차 부품이 원저우 대표산업임

o 주요 내용 요약

- 김재홍 부위원장과 장경 원저우 시장은 한국과 원저우시 간의 방송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경제·문화·방송 분야 교류, 산업협력 현황, 한국기업 투자유치 정책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
- ’16년 10월 개관예정인 원저우시 한국상품전용관에 대한 한국-원저우시 간 협력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확인
- ’16년 9월 항저우 G20 정상회의시 원저우 홍보 방안, 한국 언론인 및 주요인사 등의 원저우 방문 유치 등에 대해 논의

【한국과 원저우시 간 교류 관련]

o **(장경 시장)** 김재홍 부위원장님께서 다시 원저우시를 찾아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환영하며, 부위원장님께서 원저우시와 한국의 경제 무역 교류에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쑤리히 당 서기를 대신하여 감사드림

- 저는 항저우시에서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와 반도체 기술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논의한 바 있음

- 또한, 항저우시의 자매도시인 여수시를 방문하여 세계박람회 개최 관련 사항을 논의한 적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세계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음

- 중국에는 여수시와 같은 작은 도시들이 많으며 각 도시들 모두 강한 도전정신과 문화, 관광유산을 갖고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원저우 시정부 면담 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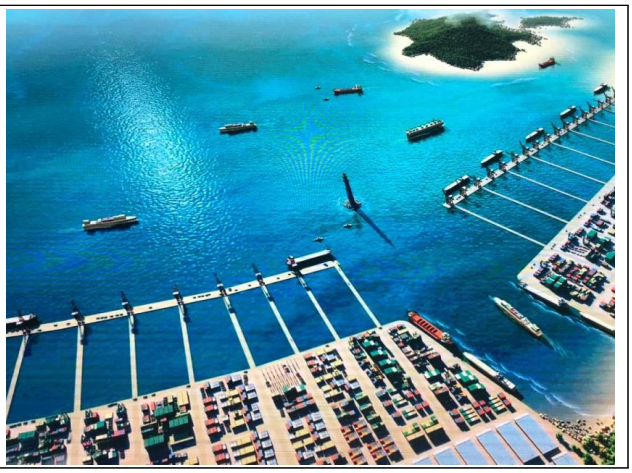
- 원저우시는 아직 첨단기술 분야는 약한 편이지만 경공업 분야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특히 경공업과 의류 가공재단 기술 등은 전 중국과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교류를 통해 서로 보완하고 협력한다면 발전이 있을 것임

- 특히 한국의 기술능력이 매우 선진적이기 때문에 원저우시가 많이 배우고 모델링을 해야할 것임

- 또한, 의류·신발 등의 생산업과 함께 문화산업 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음. 특히 원저우시는 패션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 분야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원저우시가 첨단기술에서 아직 부족하지만 패션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문화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문화산업 분야 교류는 매우 중요할 것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의 인물, 이미지 등을 상품화시키고 유통시키는데 원저우시의 패션산업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 원저우시 홍보사진>



- 원저우시는 민간경제가 발달되었고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 점이 한국과의 교류를 위한 큰 장점이 될 것임

- 부위원장님께서 원저우시가 의류·패션 기술이 우월하고 민간경제 발달지역임을 한국에 널리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으며, 이제 직항로 개설로 훨씬 가까워진 원저우시가 한국 기업의 최적 투자지역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람

o (김재홍 부위원장) 이번 한국 대표단의 원저우시 방문이 원저우시를 문화의 도시, 경제 산업 도시로 널리 알리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방송 콘텐츠를 통한 방법이 있을 것임

- 특히, 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게임·패션 등의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원저우시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저는 2014년 12월부터 원저우시와 인연을 맺고 원저우시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한-중 방송 콘텐츠 교류, 원저우 한중산업단지 건설, 원저우 한국상품전용전시관 개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원저우 시정부 면담 사진>

- 작년에 원저우시를 방문하여 우리 위원회와 원저우시 간의 MoU를 체결했고, 원저우 라디오TV그룹과 한국의 EBS 교육방송, CJ E&M이 MoU를 체결한 바 있어 이제는 이러한 교류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원저우TV가 한국에 방문하여 OBS경인TV 및 경인FM과 MOU를 맺고 그 성과로 OBS TV를 통해 '원저우패밀리 시즌1'이 방송되어 한국 시청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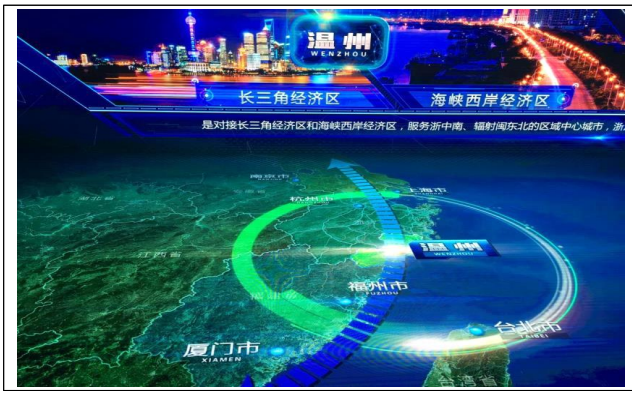
- 곧 '원저우패밀리 시즌3'가 기획·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 소재와 촬영무대가 한국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정된다면 한국의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음

- 원저우시를 한국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① 언론사 기자를 통한 직접 취재 및 보도하는 방법과 ② 원저우패밀리 등 방송 콘텐츠를 통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여기에 더욱 확대 및 심화된 제안을 한다면 원저우 지역을 무대로 한 다큐멘터리·드라마를 제작해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는 어제 원저우 라디오TV그룹과의 면담에서 사전 논의하였음. 후속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가 착수된다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임

- 또한, 문화미디어 및 방송 콘텐츠 교류 협력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경제산업 협력 부분이 있는데, 첨단산업 기술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원저우시를 제대로 알려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을 수 있도록 만듦이 중요할 것임

<원저우시 방문 사진>



-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고 10월에 개관 예정인 원저우시 한국상품전용관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국의 기업들이 자신의 상품을 원저우시에 수출하여 판매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저우시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기업을 중심으로 원저우 지역에 투자하는 요인이 발생하여 한국 기업의 원저우 지역 투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특히, 원저우시가 한국 기자단에게 원저우시 계획 전시관과 한국 상품전용전시관을 취재하도록 하고 설명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며 원저우시를 한국에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임

- 이러한 경제와 문화분야의 교류 협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외적 변수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방송 콘텐츠와 문화 산업의 교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함께 해 온 역사와 향후 미래 비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G20 정상회의 관련]

o (장경 시장) 우리 원저우시를 방송 콘텐츠를 통해 홍보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며, '16년 9월에 개최되는 항저우 G20 정상회의를 맞아 전세계 고위급 인사와 많은 기자단이 우리 저장성을 방문할 것임

-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고위인사와 취재단이 우리 원저우시에도 방문하여 원저우의 문화를 느끼고 한국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 원저우 시정부 면담 사진 >

o (김재홍 부위원장) 장경 시장께서 말씀하신 G20 정상회의를 통해 저장성 지역을 한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함

3. 원저우시 계획 전시관 및 한국기업상품전용관 방문

□ 일시 /장소 : ‘16. 7.27(수) 10:00~12:00, 원저우시 소재

□ 참석자 :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 김성환 비서관
(원저우시) 주회중(외사부 주임)

□ 주요내용

o (원저우시 계획 전시관) 원저우시 역사, 관광, 교통, 도시계획, 산업단지 등을 홍보하는 전시관으로 4D 입체관, 영상관 등 첨단IT 기술 등이 접목됨

< 원저우시 홍보관 및 한국기업상품전용관 방문 사진 >

o (한국기업상품전용관) 원저우시 시장과 상가 밀집지역에 건설되고 있으며, 1차 건물은 연건평 5만여 평으로 한국의 화장품과 건강의료, 그리고 디지털 기기류의 생산업체 1,000여 개가 입점 신청을 했으며 오는 10월 개관할 계획

4. 난징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소프트웨어단지 방문

□ **일시 /장소** : ‘16. 7.28(목) 10:00~12:00, 난징 첨단기술산업개발구

□ **참석자** : 김재홍 부위원장, 김성환 비서관

□ **주요 내용**

o **(개요)** 장쑤성과 난징시 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하였으며 중국 최초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국가급 개발구. 장쑤성 최초의 국가 햇불계획 소프트웨어 산업기지 및 국가 첨단기술 수출기지

- 현재 등록된 기업은 1,700여 개이며, 난징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

< 난징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소프트웨어단지 소재 기업 방문 사진>

- 난징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소프트웨어단지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 ZTE 클라우드서비스(ZTE 자회사로 VR, AR 관련 기술 개발)와 나가소프트(방송 콘텐츠 및 솔루션 업체)를 방문하여 한국의 전문기업들과의 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

5. 난징 리지샹 일본군 위안소 유적지 방문

□ **일시** : ‘16. 7.28(목) 14:00~16:00, 친화이구 리지샹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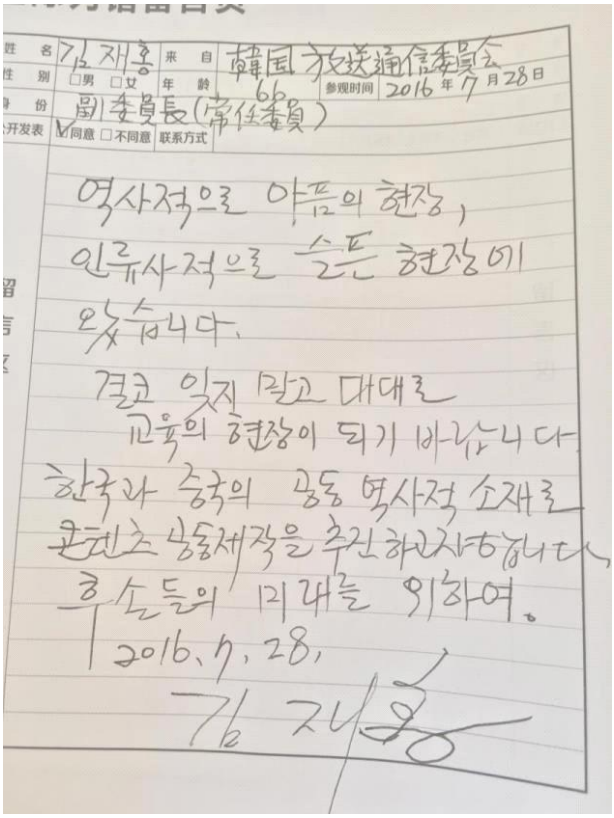
□ **참석자** : 김재홍 부위원장, 김성환 비서관

□ **주요 내용**

o **(개요)** 난징 리지샹 위안소 유적지는 중국 최초의 위안부 관련 기념관으로 일본군 위안소 중 보존상태가 좋은 난징 리지샹의 옛 위안소 자리에 위치

-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총 건축면적 3,000㎡, 2층 건물로 1,600여 점의 위안부 관련 유물, 사진 및 현장자료 등이 전시

<난징 리지샹일본군 위안소 유적지 방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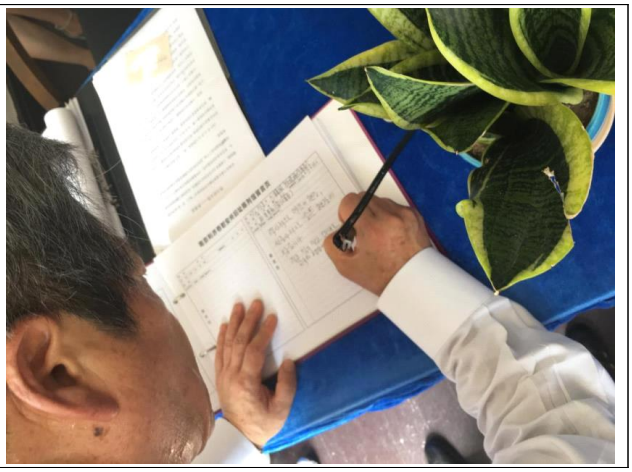


o **(언론 인터뷰)** 리지샹 위안소 유적지 관계자로부터 한국과 중국 출신 성노예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과 최근의 규탄 운동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중 양국의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슬픈 역사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널리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힘은 문화예술인들에 있다"면서,

- "독일 나치정권의 만행을 소재로 한 유럽과 미국의 소설 영화 드라마에 비하면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죄과를 소재로 삼은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

<난징 리지샹일본군 위안소 유적지 방문 중 언론 인터뷰 사진>



- 또한, 한·중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에 적합한 소재가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 시기의 치욕적인 과거사에 있음을 양국 콘텐츠 기획제작자들에게 제안

6. 난징 대학살 기념관 방문

□ **일시** : ‘16. 7.29(금) 10:00~12:00

□ **참석자** : 김재홍 부위원장, 김성환 비서관

□ **주요 내용**

o **(개요)**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로 731부대의 생체실험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벌인 가장 끔직한 전쟁범죄

-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40일 사이에 30만 명의 중국인 살해되었으며, 동 기념관은 난징대학살 70주년에 맞춰 2007년 12월 13일에 확장 개관함

- 기념관 내부에는 3,500여 점의 사진과 3,300여점의 문물, 현장 복원 모형도, 희생자 명단, 유골 등이 전시

< 난징 대학살 기념관 방문 사진>

o **(언론 인터뷰)** 김재홍 부위원장은 난징대학살 역사관을 방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국 국민의 공동 역사경험이 한-중 콘텐츠 공동 제작의 좋은 소재”라고 설명

<난징 대학살 기념과 방문 중 언론 인터뷰 사진>

- “일본군국주의 침략 시기에 중국에서 난징 대학살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3·1운동 당시 수원 제암리 학살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일본 군경이 갖은 만행을 저질렀다”며,
- “한·중 양국 국민이 공유하는 이같은 잊을 수 없는 역사 경험이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의 좋은 소재”라고 강조함

※ 한중 공동제작 콘텐츠 아이템(일본군 위안소, 난징 대학살 등)에 대해 동 출장 방문단(SBS, EBS, OBS)은 기념과 방문 전후 사전 논의를 하였고, 동 논의내용이 EBS와 장쑤TV그룹과의 실무회의(29일) 시 EBS가 난징대학살과 일본군 성노예 관련 아이템기획 제안서를 전달, 후속 실무자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

7. 영화제작사 AFT 방문

□ **일시 /장소** : ‘16. 7.22(월) 11:00~12:00, AFT 회의실

□ **참석자** : 김재홍 부위원장, 김성환 비서관, 한서영 AFT 대표

<영화제작사 AFT 개요>

o AFT 픽쳐스는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신설된 영화제작사로 영화 투자, 영화 제작, 영화인 아카데미, 텔런트 에이전트 및 국제문화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세부 면담내용**

o (AFT) 중국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드라마·예능 등의 프로그램 수입에서 이제는 한국 배우, 제작자 등의 진출로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는 한국 걸그룹 소녀시대 윤아가 출연하는 ‘무신 조자룡(후난위성TV)’이며, ‘태양의 후예(KBS)’는 조회수가 16억 건이 넘었음

- 또한,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큰 수익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제작사들이 한국에 진출하여 투자하는 사례도 증가

- 결국 콘텐츠 수입, TV 시청방식, 제작방법 등 콘텐츠 생태계 자체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AFT 면담 사진 >

o (방통위) 한중 FTA 체결 이후 방송 콘텐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경제·문화·관광 등으로 확대될 것임

- 한류 콘텐츠의 중국 진출로 인해 한국·중국 방송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 중국 내 규제에 맞게 한국 방송시장도 제작방식 변경(드라마 사전제작), 프로그램 포맷 수출, 연기자·제작진 중국 진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양국 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한 국가의 일방적 교류가 아닌 상호 보완하여 윈윈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시사점

o **(개요)** 중국에 대한 방송 콘텐츠의 교류협력과 한류 수출이 큰 암초에 부딪친 것이 아닌가하는 징후를 곳곳에서 감지

- 장쑤성 정부의 방송통신 담당 부성장과 28일 오전 면담하기로 한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었으며, 장쑤방송그룹 방문계획도 장쑤성 부성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

- 현지 중국 기업인들은 현상황에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교류에서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 없으며, 이미 벌여놓은 계속사업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였음

※ 중국 내 각급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한국과 특별한 이해관계나 인맥을 갖고 있는 경우엔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현상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 전개나 기존사업 확대는 전개하지 못하는 상황

o **(콘텐츠 교류협력)** 중국 정부가 현 단계에서 한국에 대한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조치까지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만일 베이징의 광전총국 등 중앙정부가 전면적인 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원저우시도 약속한 일정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웠을 것임

- 현재 방송 콘텐츠와 한류의 중국 진출이 부딪친 암초를 지혜롭게 극복 및 해소해 나가야 하며, 여기서 본래 양국 관계의 출발 논리였던 '정치군사 문제와 비정치군사 분야의 분리'를 강조할 필요

-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중국과의 역사적인 공동경험을 최대한 강조하고 이를 소재로 삼은 방송 콘텐츠의 공동제작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2. 특이사항

□ 국내방송 송출 현황

o 출장기간('16.7.25~7.29) 중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베이징, 원저우, 난징 현지 송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중국 성급위성, KBS월드 등을 통해 드라마 등의 방송 프로그램이 송출

< 한국 방송콘텐츠 송출 현황>

□ 선물수령 관련

o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o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1. 출장 동정 보도자료(7.25)

국민행복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6년 7월 25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전혜선 팀장(☎2110-1331)
국제협력팀 장좌영 주무관(☎2110-1332)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 한-중 방송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을 위한 본격적 지원 시동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한-중 양국 간 방송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김 부위원장은 장쑤성 및 원저우시 정부를 방문하여 양국 방송 콘텐츠 분야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쑤방송그룹 및 원저우 라디오티브이(TV)그룹을 방문하여 양국 방송 콘텐츠 업계의 향후 협력방향, 중국의 방송시청 동향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 및 상품성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문기간 중 한국교육방송(EBS)과 장쑤방송그룹 간에는 구체적 협력사업도 논의될 예정이다. 끝.

2. 원저우 관련 보도자료(7.27)

2016. 7. 27.(수)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6년 7월 27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부위원장실 김성환 사무관(비서관) (☎2110-1223)

중국 방문 김재홍 부위원장, "경제 · 문화 분야, 외적 변수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확대 강화시켜야"

- 원저우 시장과 간담회, "한국상품전용관, 10월 개관 차질 없어야" -

- 원저우 시장, "9월 항저우 G20정상회의 때 한국 인사들 원저우에도 많이 방문하기 기대" -

한중 방송콘텐츠 교류 지원을 위해 저장성 원저우를 방문한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장경 시장과 면담하고 경제와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와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외적 변수때문에 흔들려서는 안되며 방송콘텐츠와 문화 산업의 교류 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두 나라가 지금까지 함께 해 온 역사와 향후 미래 비전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장경 원저우 시장은 “원저우가 첨단 기술에서 아직 부족하지만 패션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문화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소개했다.

장 시장은 이어 “오는 9월 4~5일 여기서 가까운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한국의 기업인과 언론사 취재기자들이 원저우에도 많이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원저우의 시장과 상가 밀집지역에 건설 중인 한국상품전용관을 방문해 양국 경제산업 교류의 상징적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1차 건물이 연건평 5만여평으로 원저우 출신 기업인 분마그룹이 건립하는 한국상품전시관은 현재 한국의 화장품과 건강의료, 그리고 디지털 기기류의 생산업체 1,000여개가 입점 신청을 했으며 오는 10월 개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6일 오후 김 부위원장은 원저우라디오TV그룹 방송사를 방문해 양수휘이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콘텐츠 공동제작 등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끝.

3. 난징 관련 보도자료(7.29)

2016. 7. 29.(금)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6년 7월 29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부위원장실 김성환 사무관(비서관) (☎2110-1223)

김재홍 부위원장,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의 좋은 소재는 공동 역사경험 "

-난징 일본군위안소 현장 방문, "한국과 중국 출신의 일본군 성노예, 양국 국민이 잊지 못할 슬픈 역사"-

-난징대학살 현장 방문, "3·1운동 당시 한국에선 일본 군경이 제암리학살 등 전국 각지서 살상 자행"-

-"작년 중국 전승절 70주년도 공동의 역사로 인식 가능"-

-EBS 글로벌사업팀, 장수TV와 실무회의서 난징대학살과 일본군위안소 관련 공동제작 기획제안서 전달-

한·중 방송통신 교류협력과 콘텐츠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의 지방도시들을 순회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재홍 부위원장은 29일 난징대학살 역사관을 방문, "양국 국민의 공동 역사경험이 콘텐츠 공동제작의 좋은 소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군국주의 침략 시기 중국에 난징대학살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3·1운동 당시 수원 제암리 학살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일본 군경이 가진 만행을 저질렀다"며 "한·중 양국 국민이 공유하는 이 같은 잊을 수 없는 역사 경험이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의 좋은 소재"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28일 1930~40년대 난징 일본군위안소를 방문해 현지 관계자로부터 한국과 중국 출신 성노예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과 최근의 규탄 운동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양국의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슬픈 역사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널리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힘은 문화예술인들에 있다"면서 "독일 나치정권의 만행을 소재로 한 유럽과 미국의 소설 영화 드라마에 비하면 일본군국주의가 저지른 죄과를 소재로 삼은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에 적합한 소재가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 시기 치욕적인 과거사에 있음을 양국 콘텐츠 기획제작자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과 동행한 EBS 글로벌사업팀은 29일 오전 장수TV를 방문해 실무회의를 갖고 난징대학살과 일본군 성노예 관련 아이템기획 제안서를 전달했다. 두 방송사 실무팀은 8월31~9월2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송영상견본시장(BCWW) 및 10월 프랑스 칸느 세계영상콘텐츠 박람회(MIPCOM)에서 만나 후속 실무자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28일 난징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소프트웨어단지를 방문, VR과 AR 개발업체인 ZTE 클라우드 서비스와 방송 콘텐츠 및 솔루션 업체인 나가소프트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의 전문기업들과의 교류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끝.

4. 중국 출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8.1)

방송통신위원회

2016. 8. 1.(월)

전화 02-2110-1220

김재홍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자료

□ 방송콘텐츠 및 한류, 중국진출 활성화에 난관 형성

○ 방통위의 김재홍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방송콘텐츠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 방문단 일행은 7월25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을 거쳐 저장성 원저우와 장쑤성 난징 등 지방도시들을 순회했음.

- 방통위의 중국 방문단에는 EBS, SBS, OBS의 취재진과 해외수출 담당자들이 동행했음.

- 김재홍 부위원장은 "중국에 방송콘텐츠와 한류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시장인 지방의 성급 및 시급 TV방송사와 한류기획사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베이징의 중국 중앙정부와 광전총국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협의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

○ 중국에 대한 방송콘텐츠의 교류협력과 한류 수출이 큰 암초에 부딪친 것 아닌가 하는 징후를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음.

- 장쑤성 정부의 방송통신 담당 부성장과 28일 오전 면담하기로 한 약속이 갑자기 취소된 것도 그런 예일 것임. 이어서 장쑤TV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부성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지 못했음.

- 현지에서 만난 중국 기업인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교류에서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 없으며, 이미 벌여놓은 계속사업도 제대로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임.

□ 중국의 단계적 대응조치

○ 중국 내 각급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한국과 특별한 이해관계나 인맥을 갖고 있는 경우엔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현상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사업의 확대는 전개하지 못하는 상황임.

- 2년여 전부터 김재홍 부위원장이 나서서 교류협력을 적극 펴온 원저우시 정부와 원저우라디오TV그룹은 이번에 약속한 공식방문과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등에 관한 협의를 예정대로 진행했음.

- 장경 원저우 시장은 27일 오전 한국 취재진에 전면 공개한 김재홍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오는 9월4~5일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한국의 기업인과 취재기자들이 이곳 원저우에도 많이 방문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음.

○ 중국 정부가 현 단계에서 한국에 대한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조치까지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만일 베이징의 광전총국 등 중앙정부가 전면적인 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원저우시도 김재홍 부위원장과 약속한 일정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웠을 것임.

- 또 원저우 출신 한국 투자기업인 분마그룹이 원저우 시장 통에 건립 중인 한국상품전용관을 한국 취재진에 공개 브리핑했음. 다만 분마그룹 관계자는 향후 이 사업이 오는 10월 개관 등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 우려를 표명했음.

○ 한·중 간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에 대하여 베이징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가 내부 진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해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임.

▢ 한류 콘텐츠가 부딪친 중국 난관의 해소방안

○ 한·중 양국은 본래 경제적 실익을 내세워 1992년 정치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그 후 주요 지도자들의 교류가 공식화함으로써 심화 발전해 왔음.

- 현재 방송콘텐츠와 한류의 중국 진출이 부딪친 암초를 지혜롭게 극복 해소해 나가야 하며, 여기서 본래 양국 관계의 출발 논리였던 '정치군사 문제와 비정치군사 분야의 분리'를 강조하는 것이 전략적임.

- 김재홍 부위원장은 "한· 중 방송콘텐츠 교류와 한류 활성화가 외적 요인에 의해 흔들려선 안되며 비정치군사 분야인 경제산업과 함께 더욱 확대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중국과의 역사적인 공동경험을 최대한 강조하고 이를 소재로 삼은 방송콘텐츠의 공동제작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임.

- 김재홍 부위원장은 7월28일 장쑤성 정부 방문이 취소되자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마련해, 28일 낮 난징 일본군위안소 역사관을 방문해 현지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29일 일본군이 자행한 난징대학살을 기억하기 위한 역사관을 방문함

- 김 부위원장은 두 역사관에서 "일본군군주의 시기인 1937년 12월 중국 국민이 난징대학살의 뼈아픈 역사를 겪었다면 한국 국민은 1919년 3·1운동 당시 수원 제암리 학살 등 전국 각지에서 일본 군경에 의한 무차별 살상만행을 당했다"면서 "이같은 역사 공동경험이 바로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에 적합한 소재"라고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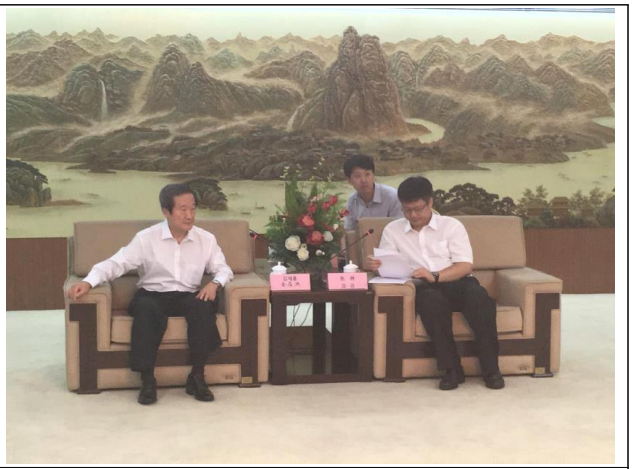
- 그는 이어 "독일 나치정권이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제작한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의 다양한 콘텐츠에 비하면 일본군국주의 정권의 만행에 대한 아시아지역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역설. 끝.

첨부 : 현장 사진.

2016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홍

중국 저장성 · 장쑤성 출장 관련 현장사진

	
2016. 7. 26. 원저우라디오TV	2016. 7. 27. 원저우시정부
2016. 7. 28. 난징 소프트웨어단지	2016. 7. 28. 난징 일본군위안소 유적지
2016. 7. 29. 난징대학살역사박물관	2016. 7. 29. 난징대학살역사박물관

5. 주요 언론보도 현황

전자신문

2016년 07월 25일 월요일
017면 인물

韓·中 방송콘텐츠 교류 위해 출국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중 방송 콘텐츠 교류와 공동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중국 방문기간 김 부위원장은 장쑤성과 원저우시를 방문, 양국 방송 콘텐츠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머니투데이

2016년 07월 25일 월요일
025면 PEOPLE

韓中 방송교류 지원위해 김재홍 부위원장 中출국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한·중 방송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이번 방문기간에 김 부위원장은 장쑤성 및 원저우시 정부를 방문, 양국 방송콘텐츠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쑤방송그룹 및 원저우라디오TV그룹을 방문, 양국 방송·콘텐츠업계 협력방향, 중국 방송시청 동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이하늘 기자 iskra@

서울신문

2016년 07월 29일 금요일 005면 종합

中 '사드 몽니'… 방통위 면담 이틀전 일방 취소

김재홍 부위원장 장쑤성행 무산
유명가수 새달 공연도 딴지 조짐
한류 콘텐츠 제작사 타격 불가피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측으로부터 예정된 방문을 무례하게 거부당하는 일이 빚어졌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의 중국 장쑤성 방문이 중국 측의 무단 취소로 갑작스럽게 무산됐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장쑤성 부성장과 만나 방송 콘텐츠 교류와 공동 제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틀 전인 26일 중국 측에서 "부성장이 갑자기 베이징 일정이 생겨 만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른 일정이 생기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을 해 왔지만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약속을 깼다"며 "김 부위원장이 앞서 일정을 체크할 때만 해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한류 콘텐츠 수입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국 공연이 예정된 우리나라 유명 가수들의 공연에 대해 중국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에 콘텐츠를 판매하기로 계획했던 방송사들이나 제작사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칭다오시는 대구 '치맥 축제'에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강원도에서는 중국 파워블로거 초청행사가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어서 관세 부과 등 노골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지만 한류 확산에 제동을 걸고 한국 방문을 취소하는 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행동으로 내보이고 있다"며 "자칫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타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매일경제

2016년 07월 29일 금요일
A33면 사람과사람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中 원저우시장과 간담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한·중 방송 콘텐츠 교류 협력을 위해 중국 저장성 원저우를 방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장경 원저우시장과 면담하고 경제·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문화 교류가 외적 변수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문화산업의 교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6년 07월 29일 금요일
019면 사람

김재홍 방통위부위원장 방중 양국 경제·문화교류 확대 논의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66·사진)은 한·중 방송콘텐츠 교류 지원을 위해 27일 중국 저장성 원저우를 방문, 장경 시장과 면담하고 경제·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상가 밀집지역에 건설 중인 한국상품전용관을 방문해 양국 경제 산업 교류의 상징적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중앙일보

2016년 08월 01일 월요일
025면 사회

한·중 방송 콘텐트 협력 방안 논의

김재홍(66·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장쑤성 난징(南京)시와 저장성 원저우(溫州)시 등을 방문해 한·중 방송 콘텐트 교류와 공동제작 지원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OBS NEWS : 방통위, 중국 원저우시와 방송 교류 협력…中 진출 박차

Posted: 2016.07.26 23:01 김대희 기자

【 앵커멘트 】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중 방송콘텐츠 교류와 공동제작 지원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정부간 공식 협력인 만큼 향후 국내 지상파 방송콘텐츠의 대중국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저장성에서 김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중국의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온주상인'의 일대기를 다룬 중국 인기드라마 '온주일가'입니다.

드라마 무대가 된 원저우시는 인구 920만명의 대도시로 전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화교상인들의 주출신지이자 기업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상파로는 유일하게 OBS를 통해 방영된 36부작 온주일가는 국내 시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후속작 온주양가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방송콘텐츠와 국내 방송사간 활발한 교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원저우 라디오TV그룹을 방문해 양국 방송콘텐츠 협력과 중국내 방송시청 동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싱크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한중관계를 계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 중심부에 온주 지역과의 문화 미디어 방송에 교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저우TV는 이 도시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종합 미디어그룹입니다.

【 싱크 】양쑤후이/원저우 미디어 그룹

"한국의 방송콘텐츠는 중국 시청자들의 감성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일종의 팬덤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앞서 김재홍 부위원장과 방문단은 원저우시에 짓고 있는 한국상품전시판매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클로징 】김대희/중국 원저우시

이번 방문기간동안 방통위는 원저우시 뿐 아니라 장쑤방송그룹과도 만나 한중방송콘텐츠 분야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 원저우시에서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 SBS NEWS : 한류의 힘…갈등 딛고 한-중 문화 교류 확대

Posted: 2016.07.28 07:43 편상욱 기자

<앵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도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저우엔 한국 상품 전문 매장까지 들어섭니다.

편상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로 따뜻한 곳이라는 뜻의 이름을 얻은 중국 저장성의 원저우시입니다.
중국의 유태인으로 불리며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화교 상인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인구 920만의 대도시지만 한국과 교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달 전 한국과 직항항공편이 생기면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같은 한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쑤후이/원저우 미디어그룹 회장 : 한국 TV프로그램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류가 확산된 데는 정부의 숨은 노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곳 원저우시를 여러 차례 방문해 방송 콘텐츠 교류확산을 주도해 왔습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정치·군사와는 별개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경제·문화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국 상품 판매까지 덩달아 늘어나자 오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5천 평방미터 규모의 한국상품 전문매장까지 건설되고 있습니다.

■ OBS NEWS : 한중 콘텐츠 교류·경제 협력 '일석이조'

Posted: 2016.07.28 21:04 김대희 기자

【앵커멘트】

한중 방송 콘텐츠 교류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양국의 경제 우호협력을 위한 메신저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사드배치로 인한 양국 갈등에도 콘텐츠 공유를 토대로 형성된 신뢰를 통해 문화산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겁니다.

중국 원저우시에서 김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연면적 1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한국상품전용전시관 건물이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500억원이 투입돼 오는 10월 개관을 앞둔 전시관은 이미 천여개 생산업체가 입점신청을 마쳤습니다.

한류주역들이 직접 모델로 나선 화장품과 스마트 디지털 기기 등 수 만개에 달하는 유망제품이 주축을 이룰 전망입니다.

【인터뷰】장후양/분마그룹한국상품매니저

"중국의 80년대, 90년대 출생 젊은 세대들은 한류콘텐츠에 대해 많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제품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앞서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겅 중국 원저우 시장을 만나 경제와 문화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저우는 등록기업만 78만여개를 웃돌 정도로 경제 중심지인데다 용선축제 등 문화콘텐츠가 풍성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인터뷰】장겅/중국원저우 시장

"원저우는 문화뿐 아니라 기업경제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이들 강소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비슷해,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다만 사드 한국배치로 중국 내에 불거지고 있는 반한 감정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중 기업인들은 9월초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이 원저우와 가까운 항저우에서 열리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양자회담이 꼭 성사돼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원저우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한국의 지역과 특히 수도권 경기 인천지역과 함께 그런 경제중심의 지역과 (문화) 교류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콘텐츠와 경제협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원저우시 상생모델이 자리잡을 경우 양국간 우호와 협력의 시너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김대희/중국 원저우

한국상품전용전시관은 온주에 이어 앞으로 심천과 북경 등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국 원저우시에서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 OBS NEWS : 한·중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대처

Posted: 2016.07.31 20:40 김대희 기자

【앵커멘트】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대학살 등 우리와 중국 두 나라엔 일본에게 겪은 뼈아픈 역사적 현실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처럼 양국 국민의 공동 역사 경험을 함께 방송콘텐츠로 만들자고 중국측에 제안했습니다.

중국 장쑤성에서 김대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20만여 명의 중국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돼 갖은 고초를 겪었던 중국 난징일본군위안소.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30여만 명이 잔인하게 학살된 난징대학살 현장까지.

중국처럼 우리 역시 일본군위안부와 수원 제암리 학살 등에서 똑같은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중 방송통신 교류협력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을 찾은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공동 역사경험이 콘텐츠 공동제작의 좋은 소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싱크】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일본 군경에 의한 학살 자행이 생각이 납니다. 이같은 공동 역사 경험을 소재로 한 한중 양국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이 매우 바람직하고 역사 교육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장성 원저우TV를 방문한 김재홍 부위원장은 중국 지역방송사들 역시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양쑤후이/원저우 미디어 그룹 회장

"한국의 방송콘텐츠는 중국 시청자들의 감성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일종의 팬덤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클로징】김대희 / 중국 장쑤성

난징대학살과 일본군위안부 등 한국과 중국이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을 주제로 한 한중공동콘텐츠 제작이 양국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 난징에서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 OBS NEWS : 방통위 "한류 콘텐츠 중국 진출 협의체 구성해야"

입력 : 2016.08.01 21:23 김대희 기자

【 앵커멘트 】

한류열풍이라고는 해도 사드사태 등 돌발변수 발생시 콘텐츠 중국 수출은 난관에 부딪히기 십상입니다.

또 국내 제작사의 진출경쟁을 오히려 중국측이 역이용해 저가로 좋은 콘텐츠만 골라 수입하는 '꼼수'가 동원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난징에서 김대희 기자입니다.

【 리포터 】

OBS가 단독방영 중인 중국드라마 온주일가는 중국 경제성장에 기업이 수행한 공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BS는 앞서 원저우미디어그룹과 마카오미디어그룹 등 중국방송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OBS 등 국내지상파 역시 이런 배경으로 중국시장을 활발하게 두드리고 있지만 과열경쟁은 오히려 저가덤핑 우려를 낳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방송교류협력을 위해 중국을 찾은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제값에 제작콘텐츠를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방통위와 국내 제작사간 협의체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내부에서 경쟁의식을 갖고 과잉경쟁을 하기 보다는,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공동 전선을 펼 필요가 있구요. 함께 협의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중앙방송과 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방송콘텐츠와도 활발하게 교류를 맺다보면 양국 기업들간 시너지효과도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장겅 중국 원저우 시장

"원저우는 문화뿐 아니라 기업경제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강소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비슷해,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 클로징 】김대희/중국 난징

다만 방통위는 한국 방송콘텐츠의 중국시장 진출에 초반부터 난관이 형성된 만큼 민관협력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난징에서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 SBS NEWS : "한류 스타 방송 출연 금지"...中 사드 보복 우려

입력 : 2016.08.02 07:31 김윤수 기자

<앵커>
중국 당국이 한류 스타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라고 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광전총국이 한국 연예인을 중국 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말 것을 각 방송사에 지시했다고 빈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광전총국은 중국의 언론과 출판, 영화, TV 등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입니다.

중국 연예계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달부터 한국 연예인이 중국 돈을 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재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한중 합작 프로그램의 신규 승인이 중단되고, 재승인도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차원의 방송제작 협력 논의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논의차 중국 장쑤성을 찾았던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지에서 일방적으로 관계자 면담이 취소됐습니다.

한국의 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한류 제재를 통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사드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공무국외여행계획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table>
<tr><td>여행목적</td><td colspan="8">한-중 방송 정책협력 및 사업자 간 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td></tr>
<tr><td>여행기간</td><td colspan="8">’16.7.25.(월)~7.29.(금) / 4박 5일</td></tr>
<tr><td>여 행 국</td><td colspan="8">중국(베이징, 원저우, 난징)</td></tr>
<tr><td>방문기관</td><td colspan="8">원저우시 정부,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 장쑤성 정부, 장쑤방송그룹</td></tr>
<tr><td rowspan="4">여 행 자</td><td rowspan="2">소 속</td><td rowspan="2">직 급</td><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성 별</td><td rowspan="2">연 령</td><td colspan="2">여 행 경 비</td></tr>
<tr><td>체재비($)+
항공료(₩)</td><td>부담기관</td></tr>
<tr><td>방송통신
위원회</td><td>부위원장</td><td>김재홍</td><td>남</td><td>67</td><td>$ 1,207 +
₩ 1,277,800</td><td rowspan="2">기획조정실
(창조기획
담당관)</td></tr>
<tr><td>운영지원과</td><td>비서관
(행정사무관)</td><td>김성환</td><td>남</td><td>45</td><td>$ 1,182 +
₩ 821,800</td></tr>
<tr><td colspan="5">계</td><td>$ 2,389
₩ 2,099,600+
$3,000(지원경비)</td><td></td></tr>
</table>

* 출장 준비 상황에 따라 부위원장을 제외한 수행자 변동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자료조사 및 일정관리 등 지원) 동행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7월 25일 (월요일)	서울	베이징			
			중국 중앙정부	o 중국 당 고위관계자 면담 ※ 면담 : 김재홍 부위원장 의전 및 수행 : 김성환 비서관	미 정
7월 26일 (화요일)	베이징	원저우			
			원저우시 정부	o 원저우시 방문 및 면담 ※ 상동	원저우시장 등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	o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 방문 및 면담 ※ 상동	사장 등
7월 27일 (수요일)			원저우 한국기업관	o 원저우 한국기업관 방문 및 면담 ※ 상동	한국기업관장 등
	원저우	난징			
7월 28일 (목요일)			장쑤성 정부	o 장쑤성 정부 방문 및 면담 ※ 상동	성장, 당서기 등
			장쑤방송그룹	o 장쑤방송그룹 정부 방문 및 면담 ※ 상동	사장 등
7월 29일 (금요일)	난징	서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o 붙임자료 참조

4. 여행효과

o **(한-중 방송교류 지원)** 한-중 방송 분야 민·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원저우시, 장쑤성)와의 고위급 면담 추진

-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 장쑤방송그룹 등을 방문하여 양국 사업자 간 판권 수출입, 공동제작 등 교류 지원

5. 외교부 협조

o 해당사항 없음

국외출장 심사시 주요 확인사항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V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V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V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V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V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V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V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V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V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V	
	2. 국내외 등 국외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V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V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V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V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해당사항 없음	

* 한-중 방송사업자 간 콘텐츠 교류협력 논의를 위해 SBS·EBS 등 한국 방송사 대외협력 담당자 동행